

동양미래대-국민대  
**‘시끌모아통복’ 최우수상**  
 평택시 도시설계 수상작 발표회



Town(팽성 특화주거단지 개발, 광운대) 등 총 3작품의 참가 대학생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제레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거버넌스 협력계획, 신장동 쇼핑몰거리 활성화를 위한 철도 활용방안, 팽성을 동창리 미군기지 정문 앞 주거단지 조성계획 등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다수 포함돼 행정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는 자리로 진행됐다.

공재광 시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청년 학생들의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대학과 지자체의 도시정책 연구의 성공적인 상생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제안

내용은 충분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젊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 참여한 학생과 지도교수도 "평택시의 도시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들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시에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해 주 더욱 의미 있게 생각된다"며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기대와 함께 청년 학생의 행정참여 기회가 확대 추진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발표회를 같이한 김수우 산업건설 위원장은 "집행부의 도시현안에 대한 고민을 청년 학생들과 협업하는 모습이 앞으로 평택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도 좋은 것 같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평택시는 이번 도시설계 공모전 수상작 발표회를 토대로 도시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등 청년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도시현안에 대한 해법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청년 대학생의 행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2월 11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학생, 지도교수, 시의원, 실·국·소장,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도시의 날' 행사 때 진행된 '평택시 도시설계공모전'의 수상작 발표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시설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작인 '시끌모아통복(통복시장 활성화), 동양미래대/국민대', 우수상 수상작인 '행복을 사는 송프란시스코(송탄관광특구 활성화), 평택대' 'Camp happiness



평택시의회 오명근 의원은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 및 지역발전공헌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오 의원은 제7대에는 상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제6대에서 제7대에 걸쳐 7년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

특히, 제7대에는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 솔선 수범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했다.

평택시의회 오명근 의원  
 2017 대한민국 베스트  
 우수의정대상 수상

또한, 2017년에는 살기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 연구회 위원으로서, 농산물 수입개방, 쌀값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관광산업 등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노력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오명근 의원은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쳤던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한 평택인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문화원이 주관하는 2017 하반기 평택학 학술포럼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지난 12월 9일 오후 3시 평택남부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사회운동, 군사, 재해복구, 독립운동,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평택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갈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포럼에서 제1주제는 김해규 평택지역문화연구소장이 '일제하 평택지역의 사회운동', 제2주제

는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이 '평택은 국가 안보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3주제는 '구휼, 농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생산 기반의 구축', 제4주제는 김방 국제대 교수가 '1920년대 평택지방의 항일독립운동', 제5주제는 서승갑 동서울대 교수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평택교육의 다면적 전망'을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마친 뒤 발표자들은 모두 모여 평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주제별로 심도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객석에서 참관하던 시민들도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일하는 청년 연금**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일하는 청년에  
 최대 1억원 자산 형성 지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  
 2년간 월 30만원 지원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2018년 1월 전면 시행**

중소기업 일자리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정책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문의 : 1577-0014**